

“엄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 영화 '리틀 포레스트' 대사 중에서

영혼의, 인생의 진짜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존재도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우리 삶도 그윽이 익어가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전주동부교회

동넙

동넙은 전주동부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구속의 시작(6)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지난번 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00년 사사시대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준비**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절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삼상 3:1). 그런 시대에 한 제사장 가문에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불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불임의 한나가 아들(태의 열매)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아들이 없으므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상 1: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이며, 어머니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아들(나실인)로 온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던 제사장 엘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삼상 2: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무엘을 세우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처럼 하나님의 고통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길 원하며, 사무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삶의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앞에
잠잠히 나아 갑니다.

부활동산 조성

김화일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임하던 기간, 전주동부교회는 영적·양적 부흥을 경험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의 큰 소득이 있었다.

첫 번째는 걸출하고 신실한 일꾼들의 발굴이었다. 1975년 최경섭 김용길 장로를 시작으로, 이근우 이흥은(1977) 이강동 전종배 이희채 이식우 양남영(1979) 장로 등이 잇달아 임직하였다. 이들은 오랫동안 전주동부교회의 사역 최전방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교회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었다. 교육관이 완성된 데 이어,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부활동산 조성에 착수한 일이었다. 1977년 11월 14일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215번지의 약 6,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해, 세상 수고를 끝낸 성도들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된 묘역을 조성하고, 실제 장례를 치를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난관들을 거쳐야 했다. 특히 마을 외부에서 부활동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일이 큰 고역이었다. 하는 수 없이 마을 주변 농지의 주인들을 하나씩 만나 설득하면서, 약 2km 길이의 진입로를 겨우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당시 진입로 개설작업은 김용길 장로가 담당했다. 책임감이 강했던 김용길 장로는 생업까지 미룬 채 매일 같이 현장에 나와, 인부들과 함께 진입로 개설에 혼신을 다했다.

결국 길은 반듯하게 완성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김 장로는 과로로 인해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김 장로의 순직은 교회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 많은 성도들이 묘역 조성을 거들고 나섰다. 그 시절을 보낸

성도들과 학생들은 매년 식목일이 되면, 부활동산을 찾아가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으며 함께 땀 흘리던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부활동산은 이후 1993년 부지를 추가로 마련해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이곳에는 현재 상조위원회의 관리하에 약 300여 기의 묘지에서 전주동부교회 설립자인 최순집 장로와 박은혜 권사 부부를 위시해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 성도들이 잠들어있다. | 정재영 기자



▲ 세상을 떠난 전주동부교회 성도들의 안식처인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의 부활동산



▲ 부활동산으로 향하는 이정표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나도 한 영혼! 주님께로!

위원장 안효건 장로

부위원장 김종후 집사
담당권사 소화수 권사
총무 정소연 집사
서기 이승은 집사
회계 김은아 집사

함께전도부 | 부장_이흥재 장로 총무_정숙자 권사
새가족양육사역부 | 부장_진서금 권사 총무_김옥순 권사
새가족사역부 | 1부_임순 권사 2부_진서금 권사
전도편지팀 | 팀장_정재영 집사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찬양대 지휘자 손요한·박진철 집사

전주동부교회에는 주일 낮 1부 살롬찬양대의 박진철 집사와 주일 낮 2부 할렐루야찬양대의 손요한 집사 등 두 명의 지휘자가 있다. 너무도 익숙한 얼굴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어보자.

■ 손요한 집사 스토리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노래에 소질이 많은 분이셨다.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 시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중요한 대회 결승전 날짜가 하필 교회 집사 안수받는 날짜와 겹치고 말았다. 당시 어머니는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신중히 고민해 선택하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셨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 노래를 접으셨고, 그때부터 음악에 대한 아버지의 꿈은 내게로 이어졌다.

여러 악기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경험도 했다. 이후 장신대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 및 편곡법 등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현재는 교회 찬양대와 CTS전북방송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다.

귀국 후 다닐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우연히 전주동부교회 앞을 지나다 무심코 이 교회에서 지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내와 나누었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로 지휘자 모집 공고가 나와 전주동부교회를 찾아오게 됐다.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믿는다.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온몸이 정화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낀다. 찬양을 하는 귀한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이며, 내가 숨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온몸과 영으로 노래하는 이 귀한 사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 찬양대원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품고 섬기기를 소망한다.

■ 박진철 집사 스토리

이탈리아인 지도교수는 나를 ‘황금빛 음색을 가진 훌륭한 테너’라고 칭찬했다.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후 이탈리아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하며 최고 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본디 바리톤이었던 성부를 이때 테너로 전향했고, 뮤지컬 오페라 합창의 지휘과정도 졸업했다.

2013년 귀국하여 지금은 호남오페라단 ‘뮌헨 챔버 앙상블’과 ‘서울이탈리아 성악회’ 단원으로 활동하며, 더 클래식아트홀 공연장 대표를 지내는 중이다. 우리 교회 찬양대와 전주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도 맡고 있다.

2024년 8월 살롬찬양대 지휘자로 부임해 매 주일 이른 아침인 7시 30분부터 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습한다. 찬양대원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도님에게 은혜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향시설과 장비의 한계, 전문 엔지니어 부재 등에 아쉬움이 있다. 더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예배 중에는 물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더욱 은혜롭게 전달되길 기대한다.

또한 현재 약 30여 명 규모인 찬양대가 50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더욱 웅장하고 은혜로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



[손요한 집사] “박진철 집사님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시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이 참 좋고 감사

합니다. 유머러스한 성격도 지휘자의 큰 덕목인데, 꼭 전수받고 싶습니다.”

[박진철 집사] “손요한 집사님은 매주 악보를 외워서 지휘하실 정도로 준비와 열정이 뛰어나십니다. 또한 집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섬김의 자세는 제게도 큰 귀감과 힘이 됩니다.”

| 이현미·이승은 기자

웃음과 감동 가득한 잔치

성황리 마친 2025 새생명축제



전주동부교회는 9월 14일 '다시 생명으로, 다시 복음으로'를 주제로 새생명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8월 24일 태신자 작정을 시작으로, 8월 30일 새생명축제 발대식과 태신자 선물 나눔 등 다양한 준비과정을 거쳐 성도들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새생명축제에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강연을 통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나누었다. 특히 안소장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복음을 전파하는 복화술사로 세워지기까지의 삶을 간증하며,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유명한 '깡여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복화술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메호라찬양단과 중·고등부 워십팀이 무대에 올라 은혜 가득한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준비된 음식과 차를 나누며, 성도들과 태신자들이 화목하게 어우러지는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 축제에는 총 40명의 태신자들이 참석했다. 전주동부교회는 이번 새생명축제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의 기쁨

을 다시 회복하고,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윤미영 기자

새생명축제와 함께 목요전도도 재개



전도위원회는 올 하반기 목요전도를 9월 4일 교회 찬양 대실에서 개강식과 함께 다시 시작했다.

개강식에서 복음의 침병의 역할을 다짐한 전도팀원들은 9월 11일에는 새생명축제를 위한 준비에 온몸으로 함께 했다. 이어 9월 18일에는 중앙시장에서 전도지와 요구르트, 쌀과자 등의 먹을거리를 준비해 거리의 행인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10월부터는 목요전도의 상징과도 같은 봉어빵 트럭이 다시 등장해, 교회당 후문에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 정소연 기자

남은 시간도 파이팅!



전주동부교회가 오는 11월 13일 실시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하여 전교인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는 김예찬 김주민 박예찬 박주빈 박주형 박현준 백건우 서아인 송하영 이윤학 정해찬 정혜슬 등 12명이 도전한다. 성도들은 특히 12인 수험생들의 성숙한 신앙과 건강, 시험 준비와 당일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운동 한창

컨디션, 수시·정시 지원 및 면접, 대학 진학 후의 신앙생활 등 네 가지 항목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다. 뒷바라지에 애쓰는 학부모들의 기도와, 진심으로 응원하는 전교인들의 사랑이 수험생들에게 전달되어 담대히 시험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그리고 각자의 진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원한다.

| 최조경 기자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전주동부교회의 전문 의료인들이 이 지면을 통해 각 계절별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고 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은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는 가을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워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 질환 등이 흔히 발생하며,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게는 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르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 1) 적절한 옷차림과 잠자리 | 가을에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워지기 쉬우므로 창문을 열고 자는 것을 피하고, 냉방 기구 작동을 삼가고, 꼭 적절한 두께의 이불을 잘 덮고 자야겠습니다.
- 2)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조절 | 가을은 대기가 건조하고 습도가 낮아 피부 건조, 안구 건조, 호흡기 질환이 쉽게 생깁니다. 적당한 물을 마시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규칙적인 운동 | 면역력을 높이고 계절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을 자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단, 새벽이나 늦은 밤 운동은 기온이 낮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습관을 통한 건강관리

환절기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은 다양한 제철 식품이 풍부한 계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배, 사과, 밤, 고구마, 단호박 등이 있으며, 이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는 기관지 건강에 좋아 기침이나 가래가 잦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하고, 약간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나 유자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도 도움이 됩니다.

■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예방

가을에는 미세먼지나 건조한 공기, 꽃가루 등으로 인해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손 씻기, 코 세척, 양치질 등을 통해 외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침구와 의류는 자주 세탁하여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면역력 강화 방법

면역력은 모든 질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면(성인은 하루 7~8시간),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 비타민 C와 D, 아연 등 면역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보충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체온 유지, 영양 섭취, 운동, 위생관리 등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작은 노력이, 다가오는 겨울을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원진 집사 (익산 모현현대의원 원장)

MOVIE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
느끼는 신앙의 전율

킹 오브 킹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작품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가 국내 순수 기술력과 자본으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로 새롭게 탄생해 관객들을 만났다.

이 작품은 모팩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연출, 각본, 제작, 편집을 모두 맡아 완성했으며, 북미에서 영화 ‘기생충’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며 한국영화 중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아들은 시간 여행을 통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행적과 가르침을 경험하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까지의 여정을 따라간다.

또한 작품 속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장면, 나사로의 부활, 베드로의 귀를 붙여주신 일화 등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 또한 충실히 묘사되어 있어 재미를 더한다.

<킹 오브 킹스>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 감동과 도전을 전한다.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며, 그분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작품으로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기에 더욱 적합한 영화다.

현재 극장 상영은 종료되었으며 왓차피디아(pedia.watcha.com)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 김형열 기자

<동넙>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 종 철

편집인: 안 효 건

제작팀: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넙>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가나다순 / '25.09.26. 현재)

고정희 곽약훈 구길수 권선주 김광휘 김극명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병국 김숙희 김옥순 김은숙 김장중 김재현 김종후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대 박영삼 박 웅 백성연 백은순 봉옥란 소화수 손주상 안한성 안효건 양이성 양화영 오윤자 원복주 은경옥 은희삼 이남심 이동주 이복구 이상우 이선민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승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 순 장희선 전봉권 정규윤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서금 진금자 채동명 최근수 최금이 최남열 최동욱 최명국 최범석 최병국 최순미 최완주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한준석 홍영란 봉사위원회

전도편지 <동넙>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동넉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가을은 특별히 풍성한 열매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은 단풍으로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과 배 감과 같은 가을 열매가 익어가며, 곳곳에서 축제와 나눔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걷고 웃으며 교제하는 계절이 바로 10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계절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 또한 풍성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과 과일은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단풍길을 함께 걸으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감사의 노래로 올려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전주동부교회는 당신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4:3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목장모임		일요일 13:3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063) **275-7760**

<동넉>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